글로벌 디스플레이 투자 감소 전망
삼성·LG, 차세대 OLED 역량 집중

글로벌업체, 대규모 설비투자 마무리
국내업체, IT용 OLED 경쟁력 강화
"수요·수익성 중심 선별투자 가능성"

글로벌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 규모가 내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주요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7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액이 전년 대비 49% 감소한 약 5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투자액은 전년보다 61% 증가한 108억달러로 추산됐다.

올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8.6세대급 IT용 OLED 생산시설 투자가 집중되면서 장비 투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반면 2027년에는 주요 생산시설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신규 장비 투자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도 변수로 꼽힌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 3분기 D램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상승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일부 6세대 디스플레이 신기술 투자도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A7 공장 건설을 재개하며 차세대 OLED 생산시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A7 공장은 2021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26년 8월 건설이 재개됐다. 업계에서는 2027년부터 생산장비 발주가 시작되고 2028년 장비 반입을 거쳐 2029년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에 4조1000억원을 투입해 월 1만5000장 규모의 8.6세대 IT용 OLED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지난 7월 양산을 시작했다. 8.6세대 OLED는 기존 6세대보다 유리 원장 면적이 약 2.25배 커 노트북과 태블릿 등 중형 패널 생산에 유리하다.

LG디스플레이는 경기 파주 AP5 생산라인에 1조1060억원 규모의 OLED 신기술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OLED 기술 개발과 향후 양산에 필요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다.

차세대 OLED 제조 기술인 '플립(FLiPP)' 개발도 추진 중이다. 플립은 미세금속마스크(FMM) 대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으로 화소를 형성하는 기술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0월 기술 설명회에서 기존 FMM 방식보다 증착 공정 시간을 약 40%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업체들이 IT용 OLED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노트북용 OLED 시장의 성장 전망이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26년 글로벌 노트북용 디스플레이 전체 출하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하는 반면 OLED 패널 출하량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 노트북용 OLED 출하량도 전년 대비 2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업체들도 IT용 OLED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BOE는 2026년 6월 8.6세대 IT용 OLED 양산을 시작했고 비전옥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중국의 OLED 생산능력 점유율이 2029년 한국을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계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향후 투자는 신규 생산능력 확대보다 수요와 수익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업체들도 IT용 OLED 등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시설과 차세대 공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전자, 차량 통신제어 모듈 'ASIL D' 인증

〈ISO 26262 최고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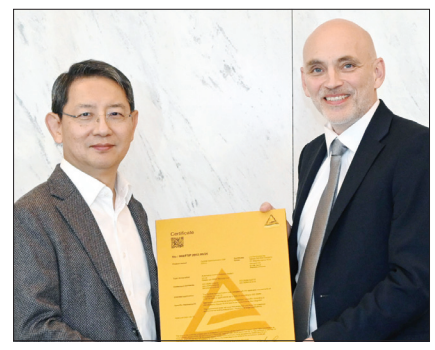
글로벌 완성차 대상 전장사업 확대

LG전자가 차량 통신제어 모듈 분야에서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LG전자는 글로벌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차량 통신제어 모듈에 대해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 ISO 26262의 최고 등급인 'ASIL D'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차량 통신제어 모듈이 해당 등급을 받은 것은 2026년 11월 TUV 라인란드 인증 기준 업계 최초다.

차량 통신제어 모듈은 차량 내부의 여러 전자제어장치(ECU)를 연결해 차량 상태 정보와 제어 명령 등을 전달하는 장치다. 외부 통신망과도 연결돼 원격제어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동과 조향 등 주행 안전과 관련된 제어 신호도 처리하는 만큼 오류나 고장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능안전 기술이 중요하다. LG전자는 제품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구현, 기능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ISO 26262의 요구 기준을 충족했다. ISO 26262는 차량 전기·전자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제표준이다. ASIL은 사고의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 운전자의 위험 상황 제어 가능성 등을 고려해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최고 등급인 D는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 부품이나 시스템에 적용되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장을 1억 시간당 1회 이하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이다.


LG전자가 차량 통신제어 모듈로 자동차 기능안전 최고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차량 통신제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5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왼쪽부터)LG전자 VS연구소장 이상용 부사장, TUV 라인란드 스벤 노박(Sven Nowak) 기능안전·사이버보안 글로벌 부사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LG전자

이번 인증을 받은 모듈은 제네시스의 초대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에 탑재됐다. LG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완성차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통신 솔루션을 비롯한 전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VS연구소장 이상용부사장은 "AIDV 전환을 위한핵심모빌리티기술인 차량통신제어모듈을비롯한전장제품의기능안전기술을지속고도화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롯데케미칼, 범용설비 축소… 수익성 개선 기대

3분기 대비 4분기 영업손실 감소 전망
내년 실적, 여수 사업재편 성과에 달려

롯데케미칼이 3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내년 여수 사업재편과 고부가 라인 가동이 실적 반등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범용 설비를 덜어낸 효과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4분기 영업손실은 3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에 몰렸던 역래깅(원료 매입 시점과 판매 시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손실) 등 일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적자를 내던 대산공장이 통합법인으로 넘어가 4분기부터 롯데케미칼 실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4분기에는 3분기 15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첨단소재 부문 주요 제품 판매량이 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배터리 소재 자회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 수요 확대, 말레이시아 신규 라인 가동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내년 실적 개선의 관건으로 여수 사업재편을 꼽는다. 여수공장은 물적분할을 거쳐 내년 상반기 여천NCC와 통합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대산에 이어 여수공장까지 연결 대상에서 빠지면 수익성 개선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첨단소재 부문은 연간 50만톤 규모의 율촌 컴파운딩 공장에 내년 1분기 고부가 제품 전용 라인을 추가한다. 롯데케미칼은 가동률이 70%대에 머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크래커에 대해서도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유화학 시황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인 기초화학 부문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회복 지연으로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산과 여수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 생산능력이 줄더라도 내년 울산에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국내 공급 부담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산에 이어 여수까지 범용 설비 정리가 마무리되면 손실 구조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샤힌 가동 등으로 시황 자체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고부가 사업이 얼마나 빨리 이익을 내느냐가 실적 반등 속도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BMW 더 뉴 BMW iX3.

멀리 가고 빨리 충전… 전기차 경제성 'UP'

YG의 카톡 car talk

BMW '더 뉴 BMW iX3'

실제 전력소비 효율·충전 편의성 발군

전기차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는 1회 충전 주행거리만이 아니다. 같은 전력으로 얼마나 멀리 달릴 수 있는지, 충전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BMW코리아가 국내 출시한 신형 전기차 '더 뉴 BMW iX3'는 장거리 실주행에서 이러한 경쟁력을 확인시켰다. 서울에서 전남 해남까지 약 380㎞를 달리는 동안 1kWh당 6.8㎞의 전비를 기록했다. 국내 인증 복합 전비인 4.8~4.9㎞/kWh보다 약 40% 높은 수치다.

시승은 서울역 인근 BMW 차징 허브 라운지를 출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위치한 파인비치까지 이어졌다. 도심과 고속도로, 지방 국도 등 다양한 도로 환경을 거치며 실제 전력 소비 효율을 확인하는 일정이었다. 시승을 진행하면서 냉난방을 사용하고 전자기기 등을 충전했지만 총 소비 전력은 56.9kWh로 높지 않았다. 특히 고속도로와 국도 주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높은 효율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주행 질감 역시 효율성 못지않게 안정적이었다. 전기차 특유의 급격한 가속 성능에 따른 울컥거림은 느껴지지 않았고 가·감속시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주행감을 제공했다. 특히 첨단 주행보조 기능은 장거리 주행시 피로도를 최소화했다. 일정 속도와 차선,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주행보조 기능(ADAS)은 차량이 주행 상황을 판단해 시스템을 운영했다.

iX3의 주행 성능은 최고출력 469마력, 최대토크 65.8kg·m를 발휘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4.9초 만에 도달한다. 충전 성능도 매력적이다. BMW 최초의 800V 고전압 아키텍처를 적용해 최대 350~400kW급 초급속 충전을 지원한다. 초급속 충전기 이용 시 10분 충전으로 약 250㎞를 주행할 수 있으며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22분이 걸린다.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611㎞다.

이번 시승은 전기차 경쟁의 무게중심이 단순한 주행거리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과 충전 편의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형 iX3는 국내에서 50 xDrive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판매된다. 가격은 SE 7990만원, M 스포츠 8760만~8780만원, M 스포츠 프로 928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24일 'Dreams that Resonate'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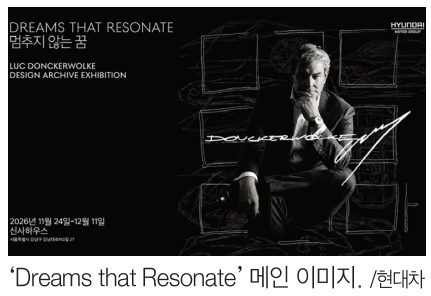
현대차·기아, 동커볼케 사장 철학 조명

"한 사람의 꿈이 현실이 되고, 다시 모두의 꿈이 되는 시간"

현대자동차·기아가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사장의 창의적 여정과 디자인 철학을 조명하는 전시회를 연다. 현대차그룹의 디자인 경쟁력을 이끌어 온 인물의 작업 과정과 성장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해 브랜드 디자인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하우스에서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 'Dreams that Resonate(멈추지 않는 꿈)'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기아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 겸 최고디자인책임자(CDO)인 동커볼케 사장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기록과 주요 디자인 작업물을 선보인다. 전시는 추상적인 디자인 철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 과정이 담긴 기록과 결과물을 통해 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Dreams that Resonate' 메인 이미지. /현대차

이번 전시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